누구의 몫인가

관심사 심층 독해 - 2026년 10월 24일자 피드 · 2026년 10월 25일 아침

> 어제 19개 피드 중 EerdWord(봇 차단 지속, 정책상 제외)를 뺀 18개를 확인해, 접속된 17개 피드의 새 글 13편을 전문 독해하고 10편을 골라 3개 주제로 분석했습니다. Leiter Reports(403, 사흘째)만 접속되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글들은 '몫'의 문제를 세 방향에서 보여 주었습니다. 한 나라가 긴축을 선택할 때 고통의 몫은 누구에게 가는가(프랑스). AI라는 새로운 능력의 몫은 선진국의 전문가에게만 가는가, 아니면 부족한 곳에 더 크게 가는가(세계은행·오픈 모델·미국 과학정책). 그리고 학술 기록에서 '정정'의 몫마저 누군가의 경력 관리 도구가 될 수 있는가(철회 사건). 닷새째 이어지는 이번 주의 줄기 - AI의 비용과 신뢰의 비용 - 위에 놓인 하루였습니다.

1. 프랑스, 긴축의 몫은 누구에게 가는가

전날 본 Fernández-Villaverde의 '구경꾼 경제' 경고(10/24 - AI 붐에 못 낀 나라는 세계 금리만 물고 성장은 제자리라 재정이 무너진다)가 추상적 모형에 그치지 않음을 Michael Roberts의 프랑스 진단이 보여 줍니다. 프랑스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19%(2026년 중반), 정부안은 적자를 GDP 5%로 줄이는 430억 유로 규모 긴축입니다. 저자의 논점은 그 긴축의 몫이 어디에 떨어지는가입니다. 교육부터: 학생 1인당 교육 예산은 2017년 이후 실질 20% 감소했다고 토마 피케티가 계산합니다(명목 17% 증가지만 물가 22% 상승, 학생 수 15% 증가 - 피케티의 계산, 저자 인용). 빈곤 지역 학교의 계약직·초임 교사 비중은 50%로 부유 지역(10%)의 다섯 배(급여 데이터 기반 Asma Benhenda 연구 인용)이고, 15년 경력 교사 월급은 4만 유로가 채 안 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0% 낮습니다. 빈곤율은 15.4%(2024년)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 - 이 수치는 프랑스 통계청(INSEE) 원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저자의 진짜 논점은 진단이 아니라 인과 구조입니다. '방만한 공공부문'이라는 통념에 맞서, 프랑스의 비금융 민간부채가 GDP의 134.2%로 공공부채보다 크고 유로존 평균을 30%포인트 웃돈다는 것, 그리고 부채비율 급등은 1980-82년, 1991-93년, 2008년, 코로나 등 민간 위기 때마다 발생하고 그 후폭풍을 공공이 떠안은 뒤 채권자들이 긴축을 요구하는 순환이 반복됐다는 것입니다(저자의 IMF 자료 정리). 근본 원인으로는 성장률 하락과 그 배후의 투자 부진·수익성 하락을 듭니다 - 성장률이 1%포인트만 높았어도 연금 적자는 자연히 뒤집혔다는 계산(연 300억 유로, 2035년 400억). 2027년 4-5월 대선의 구도까지 포함됩니다 - 르펜의 국민연합은 1,360억 유로 삭감, 멜랑숑의 좌파는 중앙은행 보유 국채 상각. 이 글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의 진단임을 감안해 읽되, 그가 모은 분배 통계들(상위 1% 소득 몫 7.5%→12.7%, 상위 1% 부 몫 15.9%→24%, 1983→2022)은 출처가 있는 사실 부분입니다.

2. AI의 몫은 부족한 곳에 더 크게 가는가

세계은행이 연간 기간 보고서인 『세계개발보고서 2026』 전체를 AI에 할애했습니다(제목 「The Promi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 세계은행 게재 확인). Conversable Economist의 소개에서 눈에 띄는 것은 농업 지도관(정부가 파견해 농가에 기술을 전하는 사람)의 수치입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기준은 주민 500~2,000명당 1명인데, 나이지리아는 1명이 농부 5천~1만 명, 인도는 약 1대 5,000입니다. 지식 전달 인프라 자체가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속 AI 조언은 '있는 것의 개선'이 아니라 '없던 것의 등장'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AI 조언을 받은 실험 농가의 밀 수확이 38% 늘었다는 보고서 인용 실험이 그 크기를 보여 줍니다. 보고서의 일반 원리 - AI의 이득은 경험과 기능이 적은 쪽에서 더 크다(전문가 업무의 일부를 비전문가가 할 수 있게 되므로) - 는 전날 '구경꾼 경제' 논의에서 Cowen이 던진 낙관(아이디어는 공공재라 비채택국도 혜택을 입는다)에 제도적 살을 붙입니다. 저자는 대가도 적습니다 - 콜센터 일자리 감소, 보완 인프라 필요성.

같은 날 두 소식이 이 논의의 '확산 경로'를 구체화합니다. 하나는 가격과 개방: Moonshot의 새 모델 Kimi K3.1 Pro가 출시됐고, 가격은 입력 백만 토큰 2달러·출력 10달러(Claude Opus 5.5의 절반), 가중치(모델의 학습된 수치 전부)는 11월 4일 공개 약속입니다. Simon Willison이 인용한 독립 평가(Artificial Analysis) 점수 55는 오픈 가중치 모델이 처음으로 최전선(58)에 근접한 것입니다 - 평가는 인용 기준. 다른 하나는 정책: Tyler Cowen이 미국 과학정책 수장 Michael Kratsios와 나눈 인터뷰에서, 행정부의 계획은 '범용 초지능'이 아니라 '과학을 위한 초지능'에 한정하고, 학습용 연방 데이터 세트 190개를 공개했다고 밝힙니다. 흥미로운 대목은 Cowen의 반문입니다 - 생태계에서 가장 잘나가는 부분(AI)에 더 투자하면 병목은 못 나가는 부분에서 생기지 않는가. 응답은 '포트폴리오'라는 원론이었습니다. 세 소식을 함께 놓으면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 AI의 몫이 부족한 곳에 닿으려면 저렴한 모델, 열린 가중치, 공개 데이터라는 세 개의 파이프가 동시에 열려야 합니다.

3. 정정의 기록이 정정되다 - 한 철회 사건의 뒤집힘

이번 주 넷째 날의 학술 신뢰 소식(화 GEB 총사퇴, 수 창립 편집자 이해관계, 목 EditorCheck 1만 건)은 어제의 두 Retraction Watch 기사로 이어집니다. 먼저 뒤집힌 서사: 프린스턴 학부생이 고등학생 때 쓴 논문(PVC 플라스틱을 금 나노입자와 전자빔으로 분해한다는 내용)을 스스로 문제 삼아 철회시킨 일은 지난 8월 '과학기록을 바로잡은 정직한 학생'으로 보도됐고, 이 보고서도 그 프레임을 접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댓글과 PubPeer의 의문 제기 끝에 학생은 실험을 아예 한 적이 없다고 시인했고, 저널은 10월 19일 철회 통지를 정정했습니다 - '기술된 물리 실험 대부분은 수행되지 않았다'고. 정정이 정정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묻는 것은 '자진 정정' 프레임 자체입니다 - 존재하지 않는 실험의 철회는 정직의 서사가 아니라 애초에 없어야 할 기록의 제거이며, 첫 보도가 서사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언론(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모든 매개)의 검증 책임도 함께 걸려 있습니다. 학생이 휴학 중 의회 사무실을 돌며 과

학정책 옹호 활동을 했다는 후반부는, 기록 정정이 경력 서사로 전용되는 경로까지 보여 줍니다.

같은 날 주말 종합 기사는 시스템 쪽 압력을 보여 줍니다. 확률론 주요 저널들이 AI 생성 투고 홍수('Mathpocalypse')를 견디지 못하고 신규 투고를 일시 중단했고, Cell Press는 저자들에게 뇌물을 요구했다는 의혹으로 편집장을 조사 중이며, Google DeepMind의 결정구조 데이터베이스에서 중복·비현실 구조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나란히 실렸습니다. EditorCheck가 드러낸 '관계의 문제'에 이어 '물량의 문제'와 '돈의 문제'까지 - 이번 주의 지도는 학술 출판의 문지기 기능이 관계·물량·돈 세 방향에서 동시에 압박받고 있다는 그림으로 완성됩니다.

짧게 덧붙입니다. ①Cafe Hayek의 Donald Boudreaux는 '가격 폭리' 옹호 논증을 한 단계 밀었습니다 - 재난 때 높은 가격은 과잉 청구가 아니라 공급 급감이라는 현실의 보고이고, "당신도 500만 달러를 주면 물자를 싣고 달려갈 것 아니냐"는 역설로 비판자 자신이 같은 유인에 반응함을 지적합니다. 경제학의 표준 논증(가격 통제는 정보와 공급 유인을 끊는다)이지만, 질문의 방향을 뒤집는 수사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②같은 블로그 링크 모음에서 눈에 띈 사실 - 트럼프 행정부가 7월 관세의 근거로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대공황을 심화시킨 것으로 악명 높은 법)의 96년 된 조항을 꺼내 들었고(워싱턴포스트 사설 인용), 철강 생산자물가는 취임 후 48.6% 올랐으나 자동차·부품 고용은 약 1만 3천 개 줄었다는 지적입니다(옹호자와 비판자의 집계가 엇갈리는 영역, 인용 기준). ③소웰 인용(2000년 칼럼 - '미국의 기아' 담론에 대한 반박)과 ④사이버보안 ETF 차트에 'Anthropic이 Mythos를 내놓은 날'이라는 표시가 있다는 한 줄 소식이 있었습니다.

독해의 범위를 밝힙니다. EerdWord는 봇 차단 지속으로 정해진 방침대로 제외(우회 시도 없음)했고, Leiter Reports는 사흘째 접속 거부(429에서 403으로 변화)입니다. 본문 확인은 접속된 17개 피드의 새 글 13편 전문입니다. 외부 링크 중 추가 확인한 것은 세계은행 WDR 2026 게재 페이지와 INSEE 빈곤율 원자료입니다. 프랑스 재정·교육 수치는 저자가 정리한 인용(피케티·Benhenda·IMF·AMECO)이며, 에티오피아 수확 실험과 AI 평가 점수는 각 보고서·블로그의 인용 기준이고, 관세·고용 수치는 신문 사설 인용의 2차 전달입니다. Marginal Revolution은 피드 본문 기준의 조건부 출처입니다.

반드시 읽을 링크

1. Michael Roberts, 프랑스의 구매력 위기 - https://thenextrecession.wordpress.com/2026/10/23/frances-pouvoir-dachat-crisis/
2. Conversable Economist, 세계개발보고서 2026과 AI - https://conversableeconomist.com/2026/10/23/ai-in-development-world-development-report-2026/
3. Retraction Watch, 프린스턴 철회 정정 - https://retractionwatch.com/2026/10/23/correction-retraction-rishika-porandla-princeton-macromolecular-materials-engineering-wiley/

4. Retraction Watch, 주말 종합(Mathpocalypse 외) - https://retractionwatch.com/2026/10/24/weekend-reads-journals-and-the-mathpocalypse-autism-paper-earns-eoc-cell-press-investigating-bribery-allegations/